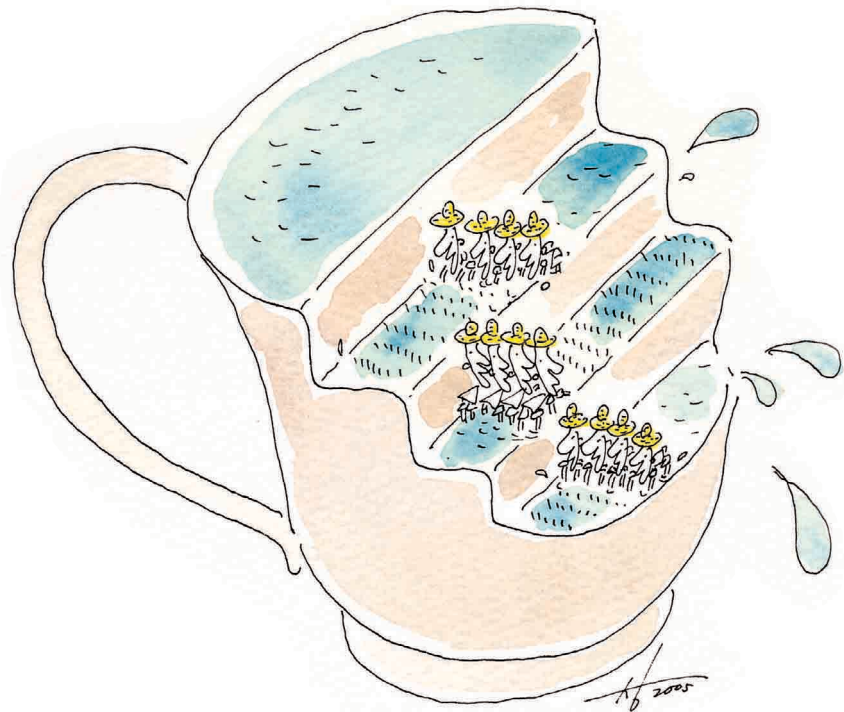


생활하수편 잘 쓰는 것과 잘 버리는 것!

글 편집실 일러스트 강창욱

수질오염의 70% 정도가 생활하수와 쓰레기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생각하며 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물 환경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음식쓰레기 정화에 필요한 맑은 물

(옥조 1통 = 2,00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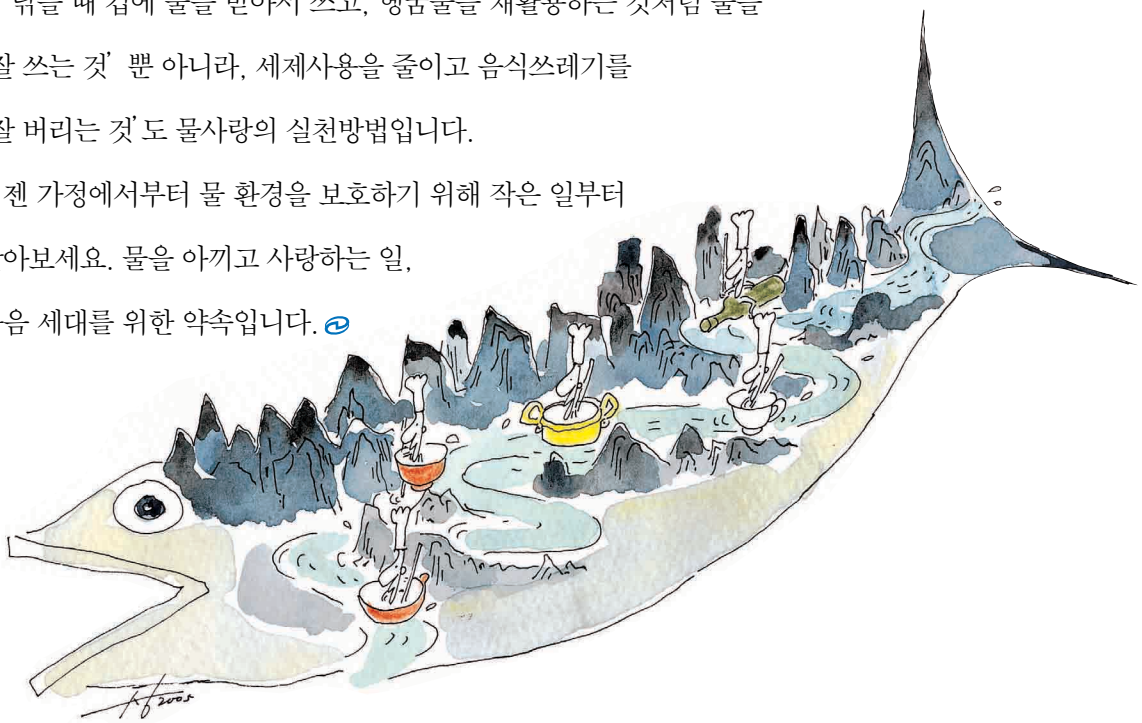
버린내용	버린양	정화시 필요한 맑은 물	버린내용	버린양	정화시 필요한 맑은 물
소주	50ml	옥조 32통	김치국물	50ml	옥조 7통
우유	150ml	옥조 39통	커피	50ml	옥조 9통
라면국물	150ml	옥조 7통	식용유	50ml	옥조17통
된장찌개	150ml	옥조 21통	요구르트	50ml	옥조 13통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었나요?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먹다 남은 라면국물을 버리고, 휴지로 닦아내지 않은 채 기름을 싱크대 배수구로 흘려보냈던 일... 그렇게 버려진 생활하수를 정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맑은 물이 필요한지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이 닦을 때 컵에 물을 받아서 쓰고, 행굼물을 재활용하는 것처럼 물을 ‘잘 쓰는 것’ 뿐 아니라, 세제사용을 줄이고 음식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도 물사랑의 실천방법입니다.

이젠 가정에서부터 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일부터 찾아보세요. 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



음식쓰레기 ‘잘 버리기’ 실천

- 1 음식은 꼭 먹을 만큼 조리한다.
- 2 음식찌꺼기는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물기를 짜낸 후 배출한다.
- 3 기름이 묻은 그릇은 헝신 신문지나 행주로 닦아낸 후 물로 씻는다.
- 4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싱크대 하수구가 막혔다면 강력세제 대신,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보자. 뜨거운 물과 베이킹소다 반 컵을 하수구에 붓고, 그래도 돌리지

않으면 베이킹소다에 식초 반 컵을 섞어서 뜨거운 물과 함께 붓는다.

- 5 설거지를 할 때 쌀뜨물을 이용하자. 쌀뜨물은 훌륭한 ‘천연세제’로 기름기까지 쉽게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쌀뜨물도 그냥 버리면 물을 오염시키므로,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화분에 주는 것이 좋다. 채소 데친 물도 훌륭한 세제가 된다.